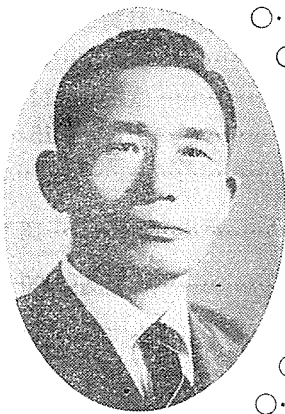


科學技術 基盤構築 강조

朴대통령 施政演說서 1人1技 技能章制度 실시



- ……朴正熙대통령은 75年度에 技術革新과 科學技術의 振興을……○
- ……圖謀하기 爲해 『科學技術基盤構築·産業技術의 戰略的……○
- ……開發政策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朴대통령은……○
- ……總規模 1조2천6백19억원의 75年度 政府豫算案……○
- ……國會提出에 따른 施政演說 (金鍾泌國務……○
- ……總理代讀)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國……○
- ……家發展에 必要的한 科學技術 人力을 원활하……○
- ……게 養成공급하기 爲하여 새로이 國家技術資格……○
- ……制度를 設置運營하고 1人1技를 爲한 技能章制度를……○
- ……實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글은 朴대통령의 施政演……○
- ……說文증에서 75年度 科學技術分野施政方針을 拔萃한것이다……○

國家技術資格制를設置運營
 韓國綜合製鐵工場建設推進

輸出産業

우선 造船·機械等 중화학공업건설을 추진하여 수출산업의 기반을 계속 확충하고 原資材의 安定供給과 수출산업의 施設代替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상품의 高級化와 수출 시장의 多邊化를 통해 수요의 개발을 촉진하고 國產原資材의 개발, 수출용 중간재의 輸入代替등을 지원함으로써 稼得率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輸入의 增加를 適正線에서 유지하는 한편, 外資導入先의 多邊化를 기하는 등 경제 협력을 계속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農漁村 개발

농어촌 개발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새마을 운동을 추진력으로 삼아 食糧自給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농정의역점을 들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農業生産基盤을 꾸준히 확충하고 농업자

재의 공급확대를 기하는 한편, 米麥 등의 農産物 價格支持政策을 견지하여 농어민의 증산의욕을 고취시켜왔으며 이와 아울러 다각적인 農漁民所得增大 특별 사업을 전개하여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식량의 自給自足은 아직도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해 농정의 방향은 主穀의 자급달성을 위한 식량증산정책의 과감한 추진과 農漁民所得增大사업의 실효 있는 전개에 두겠습니다.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優良種子의 보급확대를 비롯하여 圃地營農의 추진, 保溫못자리의 확대 보급으로 단위당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으며, 비료·농약·농기구 등 농업자재를 원활히 공급하여 농민의 증산의욕을 더욱 고취시킴으로써 主穀의 자급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4대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大單位農業綜合開發 事業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일반농업용수개발사업도 강력히 추진하여 80년대에는 불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農漁民 所得 增大를 위해서는 適正米價政策과 二重麥價制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축산·蠶業·경제작물등을 주축으로한 農漁民所得增大사업과 農家副業 등을 적극 권장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沿近海漁業과 遠洋漁業을 진흥하고 沿山綠化 10年計劃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重化學 公業

중화학공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화학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건설된 연산 1백3만 t 규모의 浦項종합 제철을 2백60만 t 규모로 확장해 나가겠으며 연산 7백만 t 규모의 韓國綜合製鐵工場建設을 단계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연산 15만 t 규모의 鑄物銑工場이 지난

10월 1일에 준공됨으로써 鑄物用 銑鐵의 자급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非鐵部門에 있어서는 기존시설의 확장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溫山非鐵團地에 연산 10만 t 규모의 銅製鍊所와 8만 t 규모의 亞鉛製鍊所를 각각 연내에 착공하여 76년까지 준공할 것입니다.

조선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금년 6월말 준공을 본 연산 75만 t 규모의 1개 조선소가 연산 2백만 t 규모로 확장될 것이며 玉浦 조선소의 건설을 본격화하는 한편, 75만 t 규모의 安井조선소와 15만 t 규모의 竹島中型조선소를 각각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계속 中小型조선소를 더 건설할 것을 계획중에 있으며, 따라서 80년대 초의 우리조선능력은 연간 10억 「달러」의 선박수출을 이룩할수 있는 세계 10위권의 조선국으로 跳躍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 있어서는 昌原基地內에 각종 대단위기계 공장이 이미 일부 입주중에 있으며 앞으로 총 27개의 공장을 건설하여 수입에 의존하여 오던 각종 기계류를 국산으로 대체토록 함은 물론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전자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유치하여 部品 및 原資材의 자급화를 기하는 한편 輸出戰略産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석유화학공업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건설중인 「에타놀」 및 「아세트알데히드」 2개 공장을 금년말까지 준공할 것이며, 75년에 연산 33만 t의 대단위 「메타놀」 공장과 高密度 「폴리에틸렌」 공장의 준공을 서두르겠습니다.

또한 계속 증가하는 석유화학제품수요에 대비하여 蔚山의 기존 「나프타」 분해공장을 확장하는 한편, 蔚山지구 및 麗川지구에 신규로 「나프타」 분해공장과 그 계열공장의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규모인 「암모니아」 기준, 年産 60만 t 규모의 대단위 제7비료 공장은 76년 준공 목표로 계속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麗川지구의 「에틸렌」 기준, 年産 35만 t 규모의 석유화학기지는 75년부터 착공, 77년도

— 朴대통령 施政演說文 —

까지 대부분의 공장을 준공하여 자원위기시마다 곤란을 당하여 온 合成樹脂 및 合成纖維 등의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화학공업 및 섬유공업의 해외依存性を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技術革新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科學技術基盤의 구축,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시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우선 국가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계 인력을 원활하게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새로이 國家技術資格制度를 설치·운영하고, 1인 1技를 위한 技能章制度를 실시할 것입니다.

한편 중화학공업과 輸出戰略產業의 육성발전을 위해 船舶開發연구소 및 海洋開發연구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들 연구소가 들어설 大德研究學園 都市건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은 창조적인 국민기풍을 振作하는데 중점을 두고 더욱 앞차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資 源

여섯째, 資源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기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정부는 國內賦存資源을 우선적으로 開發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중인 嶺東과 東海고속도로를 完工하고, 국도포장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수출증가에 대비하여 北坪·群山·蔚山 등 대규모항만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기존항만시설도 정비, 개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화학공업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昌源·溫山·麗水·牙山·玉浦 등 중화학공업 기지에 항만·공업용수·도로 등의 지원시설을 계속 확충할 것입니다.

철도부문에 있어서는 지난 6월에 개통을 본 太白線 전철화에 이어 새해에는 嶺東線을 전철화함으로써 太白·嶺東지구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서울까지 신속히 일관 수송케 할 것이며, 석탄「시멘트」의 증산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忠北線 복선사업을 착공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완공을 본 仁川화력 2호기에 이어 麗水화력 1호기를 연내에 완공함으로써 금년말까지 4백23만kw의 시설용량을 갖추게 될 것이며 새해에도 정부는 국내「에너지」자원의 최대한 개발 및 電源의 다변화시책에 따라 大淸「댐」과 원자력발전소 2호 및 3호를 각각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電源 개발계획의 연차적 추진으로 81년도에는 약 1천만kw 발전시설용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국내유일의 燃料 賦存資源인 석탄을 장기「에너지」종합시책에 따라 적극 개발할 것이며 75년도에는 1천7백만t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自動式電話의 증설, 농어촌 통신망 확충 등 통신현대화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경쟁을 강화하고 기업윤리를 昂揚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石油波動이후의 여건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